



김도영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적합’

도의회 환도위 인사청문회
삼다수 시장점유율 회복
조직 장악력 등 검증 집중

김도영 “1년 내 가시적 성과
...한계 느끼면 그만두겠다”

김도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제주도의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
원장 양홍식)는 15일 제454회 제1
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김도
영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
자에 대한 리더십, 경영성과에 대
한 책임 의지 등에 대한 검증이 이
뤄졌다.

김덕홍 의원(조천읍, 무소속)의
“삼다수 시장점유율을 45%까지 끌
어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
보자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낮은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다”며 목표
달성 의지를 밝혔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도 “45% 점유율을 달성하기 위
해 무엇을 바꿀 것이냐”고 구체적
인 전략을 요구하자 “지역과 고객
을 세분화한 타겟 마케팅과 스포
츠, MZ세대가 선호하는 채널 등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김도영 사장 후보자는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도영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도의회 제공

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이 “1년 뒤에도 성과를 내기 어렵
다고 판단하면 임기를 채우지 않
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여줄 수 있는 계
한계라고 느끼면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최
하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단순
히 매년 개최되는 골프대회를 넘어
제주삼다수 브랜드와 제주를 함께
알릴 수 있는 대회로 거듭나야 한
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날 양홍식 위원장(더불어민주
당, 성산읍)은 제주삼다수 마스터
스의 대회 위상이 과거에 비해 떨
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2014년 대회가 만
들어질 당시 박인비라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LPGA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도 제주삼다수배
대회 만큼은 꼭 참가했다. 이를 계
기로 세계적인 선수들도 대회에
함께 참가하면서 대회의 위상을
높였다”면서 “지금 대회에서는 그
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
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번 대회
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직접
갔는데 아쉬웠던 것은 화제성이 없
다는 점이었다”면서 “화제성을 부
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케팅 측
면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
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문회를 마친 뒤 채택한 인사청문
회 경과보고서에서 경영 혁신과 조직
관리, 개발사업 영역 확대 등 산재
한 공사의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관광정책 성과평가 ‘양적 지표’ 편중 한계

김봉현, 도 성과보고서 ‘질적 성장 지표’ 반영 미흡 지적
체류시간·소비액·만족도 등 관광객 실태조사 반영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의 성과
평가가 관광객 수나 사업 추진 건
수 등 양적 지표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
동갑)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
454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관광정책과 성과보고서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5
년 관광정책 목표를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질적 성장 도모’로 설
정했다. 그러나 공식 성과지표는
관광콘텐츠 17개소 100%, MICE
204건 102%, 고부가가치 특수목적
상품 6건 100% 등 모두 목표를 달

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2025년 성과
로 외국인 관광객 22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7.7% 증가한 점을 제시
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시장
이 회복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224만명의 외국인이 와서 제주 관
광이 얼마나 질적으로 성장했는지
를 보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제주도의 정책사업 목표에
는 ‘관광 패턴 변화에 대응한 글로
벌 관광도시로서의 질적 성장 도
모’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공식
성과지표는 사업 추진 실적에 집중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광객들이 제주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얼마나 돈을 쓰



김봉현 의원

고 갔는지, 지
역경제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
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다”
며 “관광교류
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
으로 성과평가

가 양적 성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
장은 “성과 목표가 사업 예산 내용
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후 개편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도가 이미
관광객 실태조사를 통해 체류시간
과 소비비용, 만족도, 여행행태 등
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성과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주
문했다.

이태윤기자

제주돌문화공원 ‘사유화 의혹’ 도마 위

한동수, 하늘연못 통제·특정인 15년 전시실 사용 특혜 제기

제주돌문화공원의 사유화 시도 의
혹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한동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제
주돌문화공원의 사유화 의혹을 제
기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돌문화공원
하늘연못이 통제되고 있는데, 어디
서 그런 결정이 이뤄졌느냐”고 꼬
집으며 “제가 듣기로는 안전상의
이유보다는 (하늘연못이) ‘신성한
구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동수 위원장

신성한 곳이라
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
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 위
원장은 “박물
관 내 특정 전
시관에 15년
동안 한 사람이 전시실을 쓴다는
것은 특혜라고 보인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돌문화공원을 사유
화하려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것 같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돌문화공
원 민영화는 안 된다”면서 하늘연
못의 재개방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호 제주특별자치도 돌
문화공원관리소장은 “오는 10월쯤
이용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돌문
화공원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돌문화공원의 하늘연
못은 돌박물관 옥상에 조성된 원형
연못으로, 관람객들이 연못 안으로
직접 들어가 사진을 촬영할 수 있
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인증샷이 이어지는 등 제주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설 정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단체장 제대로 안하면 재공천 꿈 못꾸게 해야”

김민석 민주당 대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서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
정부 특히 단체장의 활동 영역이
감찰의 공백인 경우가 많다”며 당
소속 단체장의 공약 이행과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위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를 비롯해 9곳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김 대표는 15일 제1차 시도당위원

장 연석회의에서 “광역·기초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속에
서 견제나 감시를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참좋은지방정
부위원회와 시도당을 중심으로 중
앙당은 지방자치의 책임 정당으로
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공천자로서 당선된 후보들이
우리 당의 정책과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줘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는 그것이 중앙당
과 시도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재공천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공천
은 꿈도 못꾸는 그런 당의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
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100일을
맞아 소속 광역·기초지방정부의 공
약 이행과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
한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해안동 가족묘지 매매

80년대 제주시에서 조성한
사설공원묘지 2부락

지 번

제주시 해안동 355-61

지 목

묘 지

면 적

665㎡(200평)

연 락 처

010-5697-5224

그랜드 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大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① 50%특별할인 ②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4
HIT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 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이발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당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 2022